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8년 2월 Vol.172

기획 2018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과제

특집 핵억제론의 심각한 10가지 결함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현실

사람 소성리 최장기 지킴이 자문자담 인터뷰

회원마당 합천과 소성리 기행에 다녀와서

지역소식 | 회비와 후원금



2018년 2월 통권 172호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8년 1월 16일,
미 대사관 앞, 남북 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진: 김강연)



01 **정세** 2018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오혜란

04 **기획** 2018년 우리는... + 김찬수, 김판태, 정동석, 박석분, 강수혜

14 **회원마당** 합천과 소성리 기행에 다녀와서 + 이우성, 산마을학생들

22 **특집** 핵억제론의 심각한 10가지 결함 + 크리거, 고영대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현실 + 김예숙
맥엘로이 주교의 '평화를 위한 기반' 을 읽고 + 윤승하

34 **사람** 소성리 최장기 지킴이 자문자답 인터뷰
_ 소성리 사드 투쟁 1년, 그리고 2018년 + 강현욱 김영재

40 **지역** 나주평통사 창립에 부쳐 + 이정훈

41 **소식** 나주 / 광양목포해남 / 군산 / 대구 / 대전보령 / 마산창원진해 / 성남용인
부산 / 서울 / 서울남부 / 중앙

47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1월)

2018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과제

오혜란 협동처장

2018년에는 남북·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아 핵 대결과 전쟁위기가 해소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큰 기회가 올 수도, 대화의 기회가 유실되어 한층 격화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초래할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초공세적 대북 군사적 압박과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나아가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구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엄혹한 정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

한미당국과 북한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연습과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 북미가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쌍중단이 성립한 것이다. 관건은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의 지속 여부다. 이에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된 3월 25일까지의 기간은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기간에 북미대화의 물꼬가 트여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최소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나아가 내년 3월 키 리졸브 연습 때까지 굳힐 수 있다면, 남북·북미대화가 탄력을 받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던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를 믿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가 발등에 불이 된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명분이 주어지고 선거에 이득이 된다면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북한도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 핵·미사일 실험 동결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외정책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대화로 이어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러시아도 한미 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이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냈던 참여

정부의 역할을 교훈삼아 대화의 판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은 크게 진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북미 대결구도가 기본으로 되리라는 점에서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선 비핵화, 북한은 선 평화협정을 내세워 상대의 양보와 굴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3월 25일 이후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되면 북도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기적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2017년 이상의 핵 대결과 전쟁위기가 물려올 수 있다. 미국은 3월 25일 이후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내세운 미 트럼프 정권은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군사적 대결을 전면화 할 것이다. 백악관 내 네오콘 세력들은 소위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제한적 선제공격론을 꺼내들었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북한 등을 겨냥한 소형 핵무기의 개발·배치와 사용 폭 확대 및 첨단 MD망 구축, 초정밀 재래식 무기의 배치를 서두르는 등 외교, 군사, 사회경제, 인권, 사이버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전면화하고 있다. 북한도 핵 무력 완성 선언, 핵·미사일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공언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 핵 무장을 강화하는 냉전적 대결 방식으로의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아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보완과 공세적 작전개념의 수립, 선제타격과 대량보복 능력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다그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권은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군사적 봉쇄와 경제전쟁에 나설 뜻을 공개 천명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사드 못 박기에 이어 SM-3 도입, 한미일 MD훈련의 강화로 우리를 한미일 MD와 동맹체제로 편입시키고 나아가 미일동맹 위주의 인도태평양동맹으로 끌어들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개헌, 자위대 역할 확대를 추동하면서...

한국군의 전략, 작전계획, 전력도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 광역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 보다 뚜렷해지고 방위비 분담의 증액, F-35, 조인트스타트 등 초공세적 무기 도입과 통상압력도 일상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가 냉전적 대결의 최전선이 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 또 다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화정세 구성에 큰 기회가 올 수도, 한층 격화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초래할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살얼음판과 같은 정세 속에서 진보진영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실천방침을 세워 북미대결을 완화·해소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실현, 한미동맹 해체 내지 약화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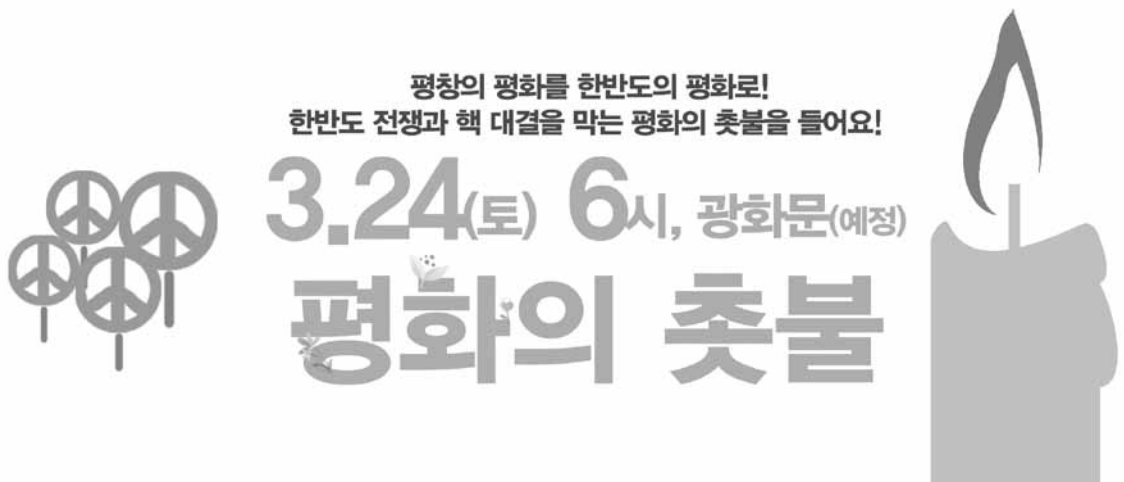
그러나 진보진영의 상태는 당면 정세의 핵심적 요구인 대화 모멘텀을 지속시키고 대중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길을 열 수 있는 정치·실천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의 동맹 강화, 핵 군비 확장 노선에 맞서 대중과 함께 국방개혁과 군축을 달성하고 민중복지를 실현할 의지가 취약하며 이를 뒷받침할 이론과 실천 경험도 일천하다. 잘못되거나 편향된 입장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로 공동실천과 연대에 임함으로써 운동의 분열을 낳고 대중적 혼란을 야기하며 취약한 진보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진보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한미동맹 해체와 강화를 동시에 주장하는 등 통일적 정치·실천방침이 결여되어 있고 민중당은 정강정책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보민중진영에게 2018년은 정치·실천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진보의 입지를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의 해가 될 수도, 한순간에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존폐를 고민해야 할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진보를 다시 세울 기회를 살리기 위한 기준과 출발점은 진보의 가치를 반영한 핵·동맹, 군축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중을 자주와 평화의 주체로 일으켜 세울 정치, 실천 방침을 세워내야 한다. 그 출발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소 쌍중단(한미 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 쌍중단으로 이어가도록 대중의 여론을 결집하는 일이다. 핵 대결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절실한 염원을 촛불광장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것이 정세의 대중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요구다.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한반도 전쟁과 핵 대결을 막는 평화의 촛불을 들어요!

3.24(토) 6시, 광화문(예정)

평화의 촛불



2018년에 우리는..

3월 3일 토요일 2시, 용산 철도회관에서는 24번째 평통사 운영위원 총회가 열린다. 2019년은 평통사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평화와 통일을 열어온 길, 우리는 어느만큼 와 있을까? 작년 사업 평가와 올해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상근활동가, 회원 몇 분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리 : 오미정)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

평통사는 2017년에 사드저지 투쟁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작년 성주와 김천, 소성리에 진행된 사드저지 투쟁에 평통사가 가장 기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동북아 MD 구상과 한반도 사드배치 계획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3년 전부터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해왔던 평통사의 활동은 정부가 사드배치 발표를 한 직후 성주와 김천의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대중국 감시용

이다. 백해무익 사드, 한반도 어디에도 최적지는 없다.' 등 평통사가 제기한 구호와 내용들은 대중들의 요구를 한 방향으로 모아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 대구경북, 평택, 군산, 대전충남 등 배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전국행동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주민투쟁과 동시에 전국 투쟁전선을 동시적으로 구축하여 사드 문제를 전국적 의제로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성과로 봅니다. 2017년에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소성리 현장 투쟁에 집중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굼직굼직한 범국민대회에 평통사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주민들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는 데도 평통사가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실에 실무 역량을 배치하고, 매일매일 지킴이들을 조직하여 배치한 것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평통사 대표로서, 사드반대 대구경북대책위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무척 크리라 생각됩니다. 대구 회원분들이 사드 저지투쟁에서 가장 또 앞장서고 있는데, 회원들과 사드 저지투쟁에 나서게 된 과정은 어떠했나요?

칠곡이나 대구 등 대구 인근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거론되어 대구회원들은 2015년부터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대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경대책위도 2016년 5월에 결성되었고 지역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평통사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대구평통사 조직력과 열성회원 대오가 취약한 상태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했는데 칠곡 배치설과 성주배치 발표로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성주 성산 포대 배치 발표 이후에는 대구와 성주를 오가며 반대 활동을 벌였고 소성리 롯데 골프장 배치 발표 이후 성주와 김천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탄핵 촛불 과정에 사드 의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는데 대구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선전홍보 활동,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이나 공안당국이 평통사를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주민들과 분리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평통사 회원들의 겸허한 자세와 꾸준한 현장 실천으로 투쟁하는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사드는 결국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드 뽑고 평화심자'는 기조로 주민들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2018년 평통사의 주된 실천 의제도 역시 사드 철회 투쟁인데요. 대구 외의 다른 지역 회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주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의 사드 철회투쟁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언론이 외면하고 이슈가 묻혀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사드배치 발표 때 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가 단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미일 MD와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핵심 고리라는 점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가 철회될 수 있는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도 평통사는 2018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북핵 위협'을 빌미로 사드가 배치 되었으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실현되면 그 빌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각 지역에서 회원들과 함께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상황을 지역민들에게 알려내고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여, 지원연대 활동을 조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성리 주민들은 평통사가 사드철회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할 조직이라는 믿음을 주고 계시는 만큼 많은 기대와 의지를 하고 계십니다. 2018년을 사드 뽑아내는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판태 군산평통사 대표

핵대결과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작년을 거쳐 올해 초 정말 어렵게 대화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제한적 대북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는 인권 문제까지 들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국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보운동 진영 내에서도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개괄해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국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된 쌍중단(한미 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이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진영 내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에는 동의하나 북핵 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미당국에게만 요구하면 되지, 왜 약자인 북한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심정이나 감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현재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들고 실천을 해야 국민대중들의 힘을 모아내고, 그 힘으로 정세를 자주,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밀고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미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을 진보진영이 앞장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방안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이 쌍중단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추진에 반대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이 분열되는 결과로 되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위 질문에 연장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추진 주장이 왜 정당하고 현재의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따른 대북 핵위협과 핵 선제공격전략 때문이며, 이에 북도 맞대응하여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함으로써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의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면 동시에 한반도 비

핵화(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북핵 폐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위기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인 방안이지요!

사실,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미 사이의 오랜 불신때문에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미국은 비핵화부터 하자고 하면서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하는 결과로 됩니다. 생각의 차이를 가진 분들과 토론하다보면 열린 마음으로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합리적 토론문화가 무척 아쉽습니다.

한미당국은 패럴림픽이 끝나면 중단했던 한미군사연습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북한도 중단했던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데요. 사실 해외 평화활동가들이나 언론들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수천만명의 삶이 파괴되고 경제문제나 환경문제 등 사실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생기는데요. 평통사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활동(한미연사군사연습, 북핵미사일 실험)이 잠시 멈춘 이 시기에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만들고, 한반도 전쟁과 핵대결을 막기 위해 <전쟁과 대결 반대>, <남북/북미 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릴레이 1인시위 등 각 지역별 실천을 전개하고 오는 3월 24일에 수천, 수만이 광화문에 모여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통사의 힘으로 거대한 촛불을 밝혀낼 수 있는가?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평통사 회원 500명 이상을 3월 24일 평화촛불에 집결시키자는 결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결의 높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당위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세의 요구에 따라 세운 참가자 조직 목표를 끌어안고 부담스러워 했으나 결국 조직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의 결의를 더 다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매우 절박한 정세의 요구에 따라 평통사 내외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때와는 다른 결의로 임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사에 더 많은 시민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산에는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 반 기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셨을텐데요, 이제 한미동맹이나 미군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평통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하면서 대선 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사슬에 묶여 결국 사드를 배치하여 국민을 배반한 기막힌 현실을 겪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문제, 미군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문제는 동맹이나 미군문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없어지면 큰일나는 듯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산도 일제시대때부터 생각하면 100년이 넘게 외국군 기지를 끼안고 살아온 도시입니다. 그만큼 넘어서야 할 벽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통사가 사드 투쟁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보수적인 지역정서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면 미국 문제도 대중적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 평통사가 이미 갖춘 내용들, 특히 한미동맹의 폐해들을 더 쉽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석 광주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전남지역 조직담당자로 활동하신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광주전남평통사를 해소하고 몇개의 시군구 조직을 회원 모임으로 전환하며 조직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2007년 허세욱 열사 분신 이후, 장례를 마치고 그 해 여름부터 지역 조직 활동을 시작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조직담당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니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지난 해엔 평통사에서 유일하게 산하에 6개의 시군구평통사(광주, 무안, 해남, 순천, 목포, 광양)을 둔 광역평통사로의 광주전남평통사를 해소하고 회원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무안, 해남, 목포를 회원 모임으로 전환(현재 복원중)하였습니다. 중간단계를 해소하여 조직을 간소화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자는 취



지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의 평통사 회원들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을지 모르지만 몇 몇 지역 조직은 회원은 많이 있으나, 조직의 기둥이 될 열성회원이 단 몇 명도 없는 상태로 간판만 유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촛불, 사드 배치 반대 등 현안 투쟁에 유의미한 실천을 전개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원은 늘었는데, 정작 평통사 활동을 전담할 주체를 세워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면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정비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들부터 세워가고 있습니다. 회원모임으로 있던 나주가 창립총회를 1월에 했고, 해남에서도 조직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통사 회원이 3,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회비만 내는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각 지역에서 조직을 책임지고 실천을 전개하는 열성적인 회원들을 찾고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광주의 경우에는 신임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도 운영위원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자기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따른 일상적인 실천, 총화의 자리로써 회의는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죽은 조직이겠죠.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 조직의 간판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통사가 정세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조직으로서, 우리 이름에 걸맞는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실천,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도 맡고 운영위원도 맡으면서 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조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중들 속에서 평통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활동에 나서는 회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과 활동에 생기가 넘쳐나겠죠?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의 비중이 평통사 전체 회원들의 30% 가까이 되는데요. 즉, 평통사를 지탱하는 주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평통사는 어떤 평가를 받는 조직인가요?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상근역량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이 워낙에 넓다보니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회원들을 챙기고, 주인으로 세우는 것에 상당히 제한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통사가 역사성도 짧고, 관계나 구성에서도 비주류(?)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설득력이 있는 평통사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대중적 토대가 확대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먼저 대표님이나 열성회원들이 평통사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노력

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적은 역량이지만 평통사가 주장하는 자주, 평화, 통일의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지역의 대중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평통사는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실천에 있어서는 헌신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특정 정파적 논리와 영역에서 벗어나 정세의 요구를 중심으로 실천한다는 점이 대중들이 신뢰를 보내고 존중해주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적은 실천역량을 확대하고 좀더 많은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 조직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것도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열성회원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부단히 실천하면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평통사 전체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

몇년 사이에 가장 회원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부산인 것 같습니다. 평통사 운동을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 평화발자국, 평화홀씨, 공부 모임 등 일상활동을 활발히 하자는 기조에 가장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상활동 강화가 어떻게 조직을 강화하는 지 부산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상적으로 회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임은 합창홀씨입니다. 합창홀씨는 현재 20명 정도인데, 이 중 10여 명이 회원이고, 매 주 모입니다. 매 주 모인다는 건, 어렵지만 회원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합창홀씨를 통해

실감하고 있어요. 매 주 모여야 소속감과 결속력, 책임감이 높아지고 조직확대가 이루어지며 평통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평화발자국의 경우 해설사로 나섰다 회원이 되거나, 회원 중에서 해설사를 하고싶은 분들이 모여 공부하고 기행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평통사 기조와 실천내용을 직접 다루고, 이를 기행이라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니 학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홀씨나 모임활동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자율적 운영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고, 스스로 체

제도 구성합니다. 이들 활동에서 평통사 기조와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해 논의를 하다보니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결합하고, 운영위원들이 집행도 나눠 맡으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홀씨모임과 회원들이 평통사의 현안 실천에까지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참가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2018년 부산평통사의 조직적, 실천적 과제를 더 구체화 하면 무엇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2016년 하반기부터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방향을 좇다보니 회원 확대에 소홀해졌습니다. 올해는 집행부를 주축으로 회원 확대에 나서려고 합니다. 또한 핵심 회원 사업에 진력하다보니 회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조직사업도 부족했습니다. 이는 조직과 실천, 재정 등의 부담이 특정한 회원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낳고 있어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모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자녀들부터 참여시키고 청년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제도 청년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서 회원 모임도 챙겨야지요. 노조에 평통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제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착실하게 해나가야 하는데, 우선 올해는 몇 사람이라도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산 평통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실천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는 과제입니다. 일단 주 1회 캠페인을 회원들 스스로 조직하고 전개하게 해야 하죠. 이 과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올해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의 올해 최대 목표는 상근자 없이도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일상적인 조직활동과 실천활동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들과 핵심 회원들이 평통사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산의 사례가 곧바로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업, 모임,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 지역의 주체적 조건, 객관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2014년 3세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대중사업의 전형들-홀씨활동, 평화발자국, 평화아카데미와 촛불-을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 동안 평통사가 고심 끝에 제기한,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잘 안되면 포기하거나 상근자가 땀 흘리는 등 관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완하고 다듬어서 살려나가

면 좋겠어요. 각 지역이 홀씨사업이나 평화발자국을 잘 해내면 전국적인 대중사업으로서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업의 주체를 세우는 문제인데, 주체를 세워내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새 길을 찾을 수도 있구요.

평통사가 부산 지역의 다른 단체와 실천과 활동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를테면, 핵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들도 대응 투쟁을 하고, 평통사도 대응 투쟁을 하는데 규모와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평통사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부산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기동성입니다. 실천과제가 제기되면 수 십~수 백 명이 즉각 달려와 결합하는... 지금으로선 평통사가 그 동력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실천역량을 확대해서 기자회견 하나라도 번듯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사실 이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 차이, 활동방식의 차이로 공동실천이나 연대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토론에 근거해서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연대운동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진보운동의 영향력과 위상이 더 높아질텐데, 민중연대의 주류 입장으로만 사업을 하려하니 정말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 진보운동진영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통사가 제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등 자주평화운동의 과학적인 정치, 정책적 방침과 실천 방식에 대해 지지하고 공감하는 단체와 개별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세우고 실천대응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한 발 한 발 진정성 있게 활동해나가면 평통사 활동이 부산지역의 자주평화운동의 새 기운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대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수혜 서울평통사 운영위원

서울 회원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도 많이 참여 하시지만 소성리 지킴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소성리를 처음 가셨을때는 어떤 생각으로 가셨고, 올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요?


처음엔 마을 홍보활동에 참여하느라 내려갔었지요. 그 추운 날 영재씨가 이끄는 대로 이 마을 저 마을 회관에 들어가 서먹서먹함에도 불구하고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사드배치 반대하며 인사했지요.

4월 26일 사드 배치가 되던 날,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머릿수라도 보태자 하는 마음으로 소성리에 갔다보니 반 주민이 되었습니다. 지난한 투쟁에 버

티려면 여론의 지지와 많은 사람의 연대가 필요한데 언론이 다루어지지 않으니 이슈도 계속 만들어 내야 하고, 그렇든 안그렇든 주민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생계 활동도 병행해야 해서 더 힘들지요. 어찌됐건 올해는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으니 그 물꼬가 평화의 물결을 이루고 강이 되도록 이슈 놓치지 말고 사드 철회(소성리에 사람이 산다), 남북 대화, 쌍중단,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병행 투쟁 등 평통사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평통사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또 실천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회원 각자가 자신이 실천가능한 것을 제안받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도 좋아야 합니다. 만나기 꺼려로우면 모임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이성보다 강해서 관계가 무너지면 모임을 회피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돼요. 반대로 관계가 좋아지면 평화통일 문제가 아니어도 서로가 보고 싶겠지요? ^^ 사실 저도 평통사 회원 3년차인데, 열정갓고 활동하다 관계가 무너지질 뻔한 일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서너번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평통사에서 만드는 피켓은 글씨가 많고 크기도 작은 것 같아요. 행인과 주행하는 차량들이 잘 볼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단어는 한자라도 줄여서 크기를 키우고, 좀 자세한 내용은 가까이 와서 들여다 볼 사람이 읽게 크기를 줄여 배열하면 좋겠습니다. 

합천과 소성리 기행에 다녀와서

한반도 핵전쟁위기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수그러들고, 남북미 간 소쌍중단(한미군사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미국의 반인륜적 핵투하로 인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있고, 북핵을 빌미로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의 주민들이 있다.

이번 기행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게 된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는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다. 평화가 온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와 이로 인해 생긴 무기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장 평화가 절박한 합천과 소성리를 택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행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꾸준히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다졌고, 또 이를 위한 실천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평화동아리를 만들어보고자 하거나 평통사 청년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정리 : 이우성, 산마을고등학교 학생들)

합천-소성리 평화기행의 의미 __ 이규빈

우리나라는 전쟁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전쟁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의 책임자는 싱겁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는 전쟁 위기의 사회 속에서 전쟁피해자들과의 연대가 전쟁을 막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에 다녀온 베트남이 떠오른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생존한 사람들은 무기들로 인한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당시의 끔찍한 기억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은 학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생존자 분들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평화와 연대의 필요성, 전쟁에 대한 공포심은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

이번 합천-소성리 기행은 각자가 전쟁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과 핵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실천 중 하나라는 의미가 있었다. 각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 '평화'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합천-소성리 기행을 함께 기획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게 된 배경, 원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공부하는 과정들을 거치며 우리가 각자 이 기행에 임하는 마음과 의미

를 되새기고 단단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행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했기에, 누군가의 제의로 필수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각자의 마음이 담긴 참여였고, 또 그만큼 돌아가는 길에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이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중 한명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합천-소성리 기행의 시작을 열었다.

첫날, 원폭자료관 방문 __ 차예성

처음 도착지는 합천 원폭 자료실이었다. 도착해서 전시된 자료들을 찬찬히 둘러 봤다. 공부했던 내용도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연표로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전시실 안에 원폭 피해자분이 직접 써내려간 증언서가 있었다. 증언서를 보는 순간 많은 감정들이 밀려왔다. 기억하기 힘든 일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원폭 피해와 문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어렵고 힘들게 쓰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다. 증언서와 더불어 심진태 지부장님과 대화로 그 시대의 참혹한 현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지부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사투리를 사용해서서 내용의 일부분을 놓쳤다. 하지만 지부장님의 말투, 손짓, 표정 그리고 눈빛 등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마음으로 와 닿았다.

숙소에 와서는 다음날 원폭 피해자분을 만나 뵈면 드릴 종이학과 편지와 사진을 준비했다. 종이학을 이번에 처음 접어 봤다. 아까 합천 원폭 자료실에서 본 영상에서의 '사다코'를 생각하며 접기도 했고, 증언서를 써내려간 원폭 피해자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심진태 지부장님이 말씀해주신 얘기를 다시 떠올리며 접기도 했다. 편지를 쓸 땐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니깐 너무 예뻐다. 설레발이지만 받으실 분이 좋아해주실 것 같았다.



이 기행을 오기 전 핵과 원폭에 대해 사람들과 공부를 했다. 공부만 했을 때는 나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모르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이 기행은 핵과 원폭 문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나에게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보며, 계속해서 알아가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__ 이기는

내가 원폭피해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본화가 마루키 부부의 대작인 <원폭도>를 보고나서였다. <원폭도>는 원폭피해에 대한 여러 장의 그림 시리즈다. 시리즈 중에 <까마귀>라는 작품은 피해대상이 조선인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그림 속에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주검마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결국 까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다. 나에게 이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원폭피해문제를 일본인들의 문제로만 바라보았고, 안타깝다는 감정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역사 수업시간에 개인 발표 과제의 주제로 원폭문제를 설정했었다. 당시에 역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원폭피해자 분들이 모여계시는 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폭 피해자분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 복지회관 소개를 받았다.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는 현재 10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분들 모두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분들이다.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분들이 없는 이유는 나가사키에 있던 조선인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주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쪽에서 배를 타서 가는 지역이



주로 나가사키였고 남쪽에서는 히로시마로 가는 배가 많았다. 이들이 타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맡긴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여 노동에 동원될 때는 징용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이어갈 때, 원폭이 떨어지면서 피폭을 당한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서워 자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만 했다. 왜냐면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원폭 피해자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1970년대에 '손진두 재판'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15년 9월달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방식은 진료를 받은 기록서를 일본에 청구하면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리고 민간단위에서는 일본

의 종교 단체인 태양회가 1997년도에 원폭 피해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각을 복지회관 뒤 편에 세웠다. 사실 과거에 원폭피해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매우 협소했다. 위령각을 지을 당시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도 일본 종교 단체에서 이 일을 기억하려고 했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공간이면서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왜냐면 한국인들이 일본사람들보다 오히려 원폭 문제에 대한 반응들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가운 한국인들의 반응은 원폭 피해자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느꼈다.

우리가 만났던 원폭 피해자 할아버지는 87세였다. 그 분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질 당시 중학생이었고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짝하는 불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전철에서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전철을 타고 왔던 길을 친구와 함께 발로 뛰어서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고 보니 자신의 팔이 화상자국으로 덮여져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화상의 쓰라림을 잊을 정도로 중학생 소년은 공포에 질려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형님과 달리 한국에 오셨던 할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군대 생활을 4~5년 정도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세대는 불행했던 세대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말씀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핵에 대해서 남한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핵(보유)을 주장하시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나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다만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사실 할아버지 가족 중에는 좋은 일도 아닌데 자신이 원폭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한다. 아마 원폭피해에 대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해 나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 내 스스로 확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원폭 피해처럼 국가적, 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2차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한다는 것이었다. 무지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무지의 상태를 의심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오만이며 결과적으로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권력은 결국 자신을 옹호할 것이다. 왜냐면 무지를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자신이 진정 피해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핵에 대한 사고가 자신이 잠재적 피폭자임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의 첫 단계는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8월 6일에 항상 위령제를 하신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둘째날, 달마산에 오르다 __ 정지영

생각보다 엄청 가파른 산과 바람 덕분에 꽤나 힘들었다. 킁킁대면서 산에 올라갔고, 어찌어찌 정상에 도착했다. 바람이 엄청 불어 귀가 아팠다. 소성리 상황실의 영재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망원경으로 멀리 있던 사드를 봤다. 생각보다 엄청 컸고, 위협적이었다. 저 사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구나. 무서웠다.



그 후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사드에 대해 공부했다. 몸이 녹아서 노곤노곤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 다 같이 나누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영상을 봤는데, 그런 영상은 정말 처음이었다. 너무 잔인했고 과격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경찰이 그런 존재라는 게 무서웠다. 왜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경찰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야 할까? 여전히 집회에 나가면 사방에 둘러싸인 경찰을 보면 무섭다. 갑자기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들이닥칠 것 같기도 해서 긴장을 놓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영상을 본 후엔 부녀회장님과 만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녀회장님은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4월 사드 1차 배치 때 경찰들에 의해 이가 빠지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았다. 부녀회장님도 마을 사람들도 아는 것이 아주 많으셨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사드가 들어오고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성주 사람들은 그렇게 사드 반대 하면서 왜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 뽑냐고 이상한 사람들 취급할 때, 나는 말했다. “내가 가봤는데 소성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푹푹하고 공부 많이 한다, 이렇게 추운데 매주 나와서 집회를 한다, 진짜 온 몸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4월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했다. 부녀회장님도 앞니가 나가고, 팔이 다치셨다고 했다. 9월 2차 배치때에도 많이 다쳤는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람, 혼절한 사람 등등 영상과 말로 들어 그 끔찍함을 알게 되었다.

집에 가셔도 자꾸 생각이 나 인터넷에 온갖 검색을 다 해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고 있고, 다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마음이 아프다.

이후 숙소에 돌아와서 현수막을 만들었다. 소성리에 걸고 갈 현수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소성리에서의 시간은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때와, 공부만 했었던 때와는 달랐다. 공부를 하고 가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다. 이게 정말 나와 가까운 일이고, 심각한 일이구나. 그냥 무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오면 진짜 전쟁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구나. 날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전쟁과 가까워지는 세상 정말...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것을 몸소 체험해보니 무섭고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해 마음 굳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진밭교 지킴이활동과 수요 집회를 마친 후 __ 장세미

2박 3일간의 일정 중 합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는 새벽 일찍 진밭교 지킴이를 하러 나갔다.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비비며 옷만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밖은 어두컴컴했다. 진밭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공기가 찬데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겁도 없이 성주에 평상시에 입는 대로 입고 간 걸 후회하게 된 날이다. 그렇게 진밭교 앞까지 들어가니 주민 분들은 벌써 나와 계셨다. 함께 난로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는데 불러도 잘 불리지지가 않았다. 옆에서 동훈 선생님이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의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는 진밭교 위로 올라가 한 줄로 막고 있는 경찰들 앞에서 함께 오늘의 구절을 읊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구호를 외쳤는데 돌아가면서 한명씩 구호를 외치는 줄 모르고 내 차례가 와서 당황했다. 당황한 순간 '사드 아웃!'을 외쳤는데 미리 구호를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제대로 외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다.

매일 아침마다 진밭교 앞에서 이렇게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주민 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지킴이 활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매일 새벽아침 진밭교로 나오셔서 이렇게 지킴이로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성주를, 그리고 사드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사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외침을 제발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 분들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귀찮다고 하루 나가지 않으면 계속 나가지 싫어진다는 말과 매일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진밭교에서 내려와 준비해주신 맛있는 아침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우성 선생님과 함께 수요 집회에서 공연 할 춤을 연습했다. 춤은 김유정이 부른 '행복합니다' 라는

곡에 플래시몹으로 찾던 안무를 배웠는데 추면 출수록 중독성도 있고 반복되는 안무에 노래도 너무 좋아서 추면서 재미있게 연습했다. 애들과 같이 프리댄스도 짜고 연습하면서 수요집회가 더 실감 났던 것 같다. 수요집회를 진행하기 전 리허설로 바위처럼도 추가하여 연습을 했는데 계속 안무를 틀려서 조금 마음이 불안했지만 ‘즐겁게 열심히 추자!’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했다. 수요집회가 시작되고 마을 어르신 분들과 수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모였다. 큰 집회는 아니었지만 매주 이곳에서 수요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집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함께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집회에서는 현재 사드 배치 진행에 대한 브리핑과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의 발언과 공연들이 이루어졌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주 이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집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마을 주민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집회의 마지막 순서였는데 우리가 성주에 오게 된 계기와 이유, 그리고 전날 만든 현수막을 보여드리고 준비한 공연을 진행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중간에 계속 틀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웃으면서 즐겁게 공연을 마무리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우리를 보시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춤을 춰주시는 주민 분들을 보면서 노래의 제목처럼 공연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민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사드와 관련된 현수막도 학교에 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떡도 챙겨주시면서 잘 가라고 배웅해주시는데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더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에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성주에서 받은 정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행을 마무리하며 __ 김원아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할애한 평화기행이었지만, 우리가 직접 눈과 몸으로 마주한 합천과 성주 소성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고민을 자연스레 하게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였을 때 그만큼 자신도 슬픔과 아픔,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건 아마도 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언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

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도 군대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기행으로 다녀온 합천과 성주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깊이 느꼈다. 또 그래서 연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보고 또 직접 만나 들으니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와 탈핵을 위한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원자폭탄 자료관에서 미국의 무지막지한 계획들과 원자폭탄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 걸까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둘째 날 성주 소성리에서 영상을 보고 또 부녀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킴이들과 그리고 집회를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칠 때는 특히 오히려 우리가 힘을 많이 얻은 것 같다. 사드가 계속해서 설치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싸우려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 부녀회장님과 수요집회에서 함께하려는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와 구호를 들으며 많이 감동했고 이 싸움은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답은 각자의 삶 속에 평화를 위한 의지와 행동이 늘 존재하는 것이다. 합천과 성주에서 직접 마주했던 한국의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분들과 사드로 인해 싸우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 이번 평화기행을 통해 생긴 다짐이다. 평화기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낮이며 밤이며 함께 각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들었던 것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스스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고 따뜻했다. 이번 평화기행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도 계속해서 많이 나누었고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합천에서 보고 듣고 마주한 사람들, 성주에서 보고 듣고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나누고 함께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화기행이 더욱 즐거운 힘이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쉴 틈 없이 알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열심히 움직였다. 힘들고 귀찮은 일도 유쾌했고 뿌듯했다.

이 사람들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평화기행을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성주와 합천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연대하고 행동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핵억제론의 심각한 10가지 결함

데이비드 크리거(2011년) / 번역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핵억제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핵 보복의 위협이며, 일반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일컫는다. 핵억제 이론은 그러한 위협이, 만약 사실인 것으로 또 충분한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인지되면, 공격이나 다른 금지된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줄 것으로 가정한다.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싶다는 바람은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유럽에서 피난 온 과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미국에게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사용을 연구하도록 권했다. 아인슈타인은 만약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독일의 핵무기 사용의 억제력으로서 핵무기의 제조 가능성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촉구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히로시마



데이비드 크리거(David Krieger)는 핵시대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의 대표로 오랫동안 핵군축운동을 해 온 활동가이자 저술가이다.

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자신의 일생의 최대의 잘못의 하나라고 여기곤 하였다.

1945년 7월,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을 때는 독일은 이미 패배하고 난 뒤였다. 미국은 이 새로운 강력한 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국가, 특히 소련에게 자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핵억제력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핵무기의 미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소련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다른 국가들도 선례를 따랐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스라엘도 독립을 보장하고 다른 핵무기 국가들의 잠재적인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인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도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핵시대의 변함없는 요소의 하나는 핵무기 국가들의 핵억제 이론에 대한 집착이다.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각기 핵억제론을 추구함으로써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핵보유국의 안보만이 아니라 문명의 안보가 핵억제 이론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핵억제가 지구의 안보와 아마도 개인

과 가정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만약 핵억제론이 아주 결함이 많은 이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핵억제론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핵보유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이—그들은 핵억제 이론을 신성시하고 있고 또 핵억제 이론에 신과 같은 그러나 비현실적인 보호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틀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자체가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인바, 왜냐하면 핵억제가 실패하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미 전략사령관으로서 George Lee Butler 장군은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책임졌다. 공군에서 은퇴한 뒤 그는 핵억제론에 대해서 “이것은 핵 시대에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적 즉 국가 생존의 보장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정지시킨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핵억제가 “아주 형편없게 현실세계를 자연발생적인 위기, 납득이 안 되는 동기, 불완전한 지성 그리고 깨지기 쉬운 인간관계로 묘사하는 믿을 수 없는 지적 구상”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산들이 자주 화산폭발의 강력한 경고 신호를 사전에 발하듯이 우리는 핵시대에 걸쳐 핵무기 및 핵억제 이론의 실패에 대한 그 같은 신호를 목격해 왔다. 핵무기는 화산과 같은 힘으로 분출해 핵억제론이 제공한 비교적 얇은 ‘방호’의 베니어판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핵무

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그들의 말에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은 핵보유 국가의 핵정책 입안자들과 이론가들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

나는 핵억제의 10가지 심각한 결함을 검토할 것이며, 이 결함들이 핵억제는 불안하며, 신뢰할 수 없고, 타당성도 없다는 결론을 이끌 것이다.

1 핵억제는 오직 이론일 뿐이다. 이것은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이 이론은 인과관계, 예를 들면, 만약 한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하면 특정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핵억제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즉 한 당사자가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 다른 당사자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핵억제에 의해서 저지된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논리상 잘못된 인과관계의 가정이다. 논리상 우리는 부정 즉, 어떤 것을 하면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핵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다른 요소의 결과일 수 있거나 단지 예외적으로 운 좋은 결과일 수 있다. 핵전쟁의 부재를 핵억제의 덕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공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핵억제 이론에 잘못된 효능감을 불어넣는다.

2 핵억제는 대량살상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다. 핵억제는 핵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위협해야 적을 억제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정책 논쟁을 낳는다. A라는 적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00만 명이면 충분한가? B라는 적국은 얼마나 죽여야 억제가 되는가? 천만, 억, 아니 더 많이? 항상 지나치게 많은 죽음을 위협하고, 그 결과 한층 더 정교한 핵 살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 이런 계산은 차례로 군비경쟁을 추동하고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에 거대한 자원 할당을 요구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대량 학살의 위협과 이 위협을 뒷받침해 줄 자원 지출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주며 과학적 및 재정적 자원의 할당이 타분야에 비해 핵억제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주민을 확신시켜야 한다. 결과는 자원의 잘못된 할당일 뿐만 아니라 노력이 국제 문제의 협력적 해결에서 벗어나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다.

3 핵억제는 효과적인 전달을 요구한다. 사실 핵억제는 전달 이론이다. A국은 적국 B가 공격해 오면 보복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적국 B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량 살상의 보복을 행하겠다는 위협은 반드시 잠재적 공격자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전달은 지도자들의 연설이나 의회 성명 속에서 구두로, 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나 심지어 소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달은 또한 구두가 아닌 동맹의 구축이나 핵·미사일 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

다. 핵억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양 쪽 각각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도적인 형태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형태이거나 다 잠재적 적국에게 보내는 전달이다. 오류와 오해의 여지가 많다.

4 핵억제는 이성적인 의사 결정자를 요구한다. 핵억제는 비이성적인 의사 결정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A국은 적국 B의 공격에 대해 핵보복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B국의 지도자는, A국 지도자가 자기(A국)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말하자면 B국의 지도자는 A국의 핵보복으로 자국(B국) 국민이 백만 명, 천만 명이 죽더라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A국을 공격할 수 있다. 나는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특히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극단적인 압력 하에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모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장래에도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노다.

5 핵억제는 잘못된 자신감을 주입시킨다. 핵억제는 자주 핵 ‘방어’와 혼동되는데, 핵무기가 공격에 대해 어떤 형태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결론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무기 및 그것의 사용 위협은 아무런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된 유일한 방호는 심리적인 것으로, 일단 무기가 비행을 시작하면 심리적 방

호가 물리적 방호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사람은 무기가 자기를 보다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안전해지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핵억제 이론은 잘못된 자신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기 보유자들로 하여금 핵위협을 가하지 않고서도 피할 수 있는 위협을 감수하게 한다. 그러한 모험은 비생산적이며, 실제로 핵전쟁으로 이어진다.

6 핵억제는 우발적 사용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핵억제는 그것이 실사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오직 의도적이고 미리 계획된 핵공격에 대해서만 유용하다. 핵억제의 목적은 의도적인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핵억제는 우발적 발사와 같은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을 막을 수 없다. 이 점은 영화 ‘닥터 전면 핵전쟁 추진론자’ (원제는 Dr. Strangelove, 1964년, 소련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이 영화 속에서 미 공군 폭격기 조종사들은 훈련 연습 중에 ‘절대 안전한’ 지점(failsafe point)을 벗어났고 또 소환될 수 없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소련의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시행된 모스크바 공격이 단지 우발적 사고일뿐이라고 해명하려고 하였다. 미국인들은 우발적 사고를 막는데 속수무책이었으며, 소련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발적 사고는 일어난다! ‘절대안전한(실패여려가 없는)’ 체계라는 것은 없으며, 핵무기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절대안전한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

단적으로 위협하다.

7 핵억제는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핵억제는 보복 위협에 토대하고 있다. 장소를 파악할 수 없는 적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복 위협은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테러리스트들은 자주 죽음을 무릅쓰며(가령 자살폭탄) 적에게 죽음이나 고통을 가하고 기꺼이 죽는다. 이런 이유로 핵억제는 핵테러리즘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 핵테러리즘을 막는 유일한 길은 테러조직 수중으로 핵무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약 핵무기와 핵무기를 제조할 핵물질이 더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점차 더 어려워질 것이다.

8 핵억제는 핵확산을 조장한다. 핵억제 이론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그 결함이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한 핵무기는 국가 방호를 위한 가치 있는 수단인 양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핵억제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은 핵확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약 핵무기가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게 되면 이에 상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압력이 뒤따를 것이다.


9 핵억제는 믿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핵억제를 홍보하는 정책 입안자들조차 진정으로 핵억제를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억제가 작동한다고 정말 진정으로 믿었다면 미사일 방어(MD)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

을 것이다. 미국만 지난 30년 동안 미사일 방어망 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계속해서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핵공격에 대한 이런 물리적 방호의 시도들은 언제나 전면적인 성공을 거둘 가망이 없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은 핵억제만으로는 국가의 방호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해를 입증해 준다.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핵억제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누가 이 핵억제 이론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인가? 십중 팔구 핵억제 이론이 약속하는 바의 효과(유효성)에 속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믿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 보통사람들이 바로 핵무기의 표적으로 되어 있고 만약 핵억제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를 뒤집어써야 한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이 ‘절대안전한 체계’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들의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10 핵억제의 실패는 재앙을 가져 온다. 핵억제 이론은 보복 위협을 위한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요구한다. 당연히 이들 핵무기는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 수단으로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억제 이론이 실패하면 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포를 뛰어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히로시마의 100배 규모의 핵무기를 주고 받았을 경우 폭풍, 화염, 방사능, 기후 변화, 흉작, 이에 따른 기아로 무려 10억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보다 규모가 큰 핵전쟁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내가 앞서 논한 핵억제 이론의 결함들은 비켜갈 수가 없다. 이들 결함들은 핵억제 이론이 극복 불가능한 내재적 약점들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핵억제론은 더욱 더 피로골절 증상을 앓게 될 것이며 형편 없이 지어진 다리마냥 붕괴될 것이다. 핵보유국의 시민들은 길 옆에서 암전히 서있지 말고 논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사실상 핵보유국의 시민들은 핵억제이론의 효과 및 정당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억제이론을 타당하고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수용해 온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말로 핵억제론이 실패할 수 있고 그것도 재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할 때이다. 핵억제론에 의해 야기된 위협의 해결은 내재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즉 지구상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사실 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따르는 위협은 불안정하고 증명되지 않은 이론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핵무기 유지의 위협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핵무기가 인류에게 야기하는 압도적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지도자들에게 도전해야 하며 고분고분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현실

김예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가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하였다. 핵무기 보유를 포함하여 사용과 사용 위협을 처음으로 불법화한 조약이다.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핵무기는 만들어진 지 72년 만에 불법화되었다.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일부가 불참했지만 이 조약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핵무기 개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7년까지 인류가 실행한 핵무기실험의 횟수는 2천 번을 넘는다. 핵무기가 있으면 침략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핵개발을 부추겼고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게, 월등히 강한 것으로 보유해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미·소 간 끝없는 핵무기 증강으로 이어졌다. 미·소는 각 2만기까지도 보유했다가 7천기 안팎으로 감축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오늘날 지구에는 15,000기 가량의 핵무기가 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는 1,800여기의 핵무기를 경고 후 몇 분 이내 발사가 가능한 최고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에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매우 많다. 기계의 작동오류나 인간의 오판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구름에 반사된 태양 광선을 미국이 발사한 미사일 엔진구름으로 소련 컴퓨터가 오인한 경우도 있었고 컴퓨터 칩의 불량 때문에 소련 미사일 2,200여기가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되었던 적도 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관련 중대한 사고가 32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언론인 솔로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바로는 1,000건 이상의 오판, 작동 오류 등 핵무기 관련 사고가 있었다. 끔찍한 재앙을 용케도 피해온 것이다.

나라	보유 핵탄두	실험 횟수
미국	6,800	1,054
러시아	7,000	715
영국	215	45
프랑스	300	210
중국	270	45
인도	110~120	6
파키스탄	120~130	6
이스라엘	80	?
북한	10~20	6
합계	14,930	2,087

출처: 미국 과학자 연맹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7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25만 명이 즉사 또는 수 주, 수개월 동안 고통 속에 죽어갔다. 그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수천 명이 방사선 관련 질병으로 죽었다. 1954년 미국이 실험한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살상력의 1천배이다.

지금의 핵무기는 초창기 핵무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용량이 크고 파괴력, 살상력이 크다. 핵무기 한 개가 폭발하면 수백만 명이 죽는다. 폭발지점의 일정 반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초처럼 녹아내려 형체가 없어지고 이어 발생하는 폭풍으로 모든 것은 날아가 흔적도 없다. 아주 멀리서는 심각한 화상과 유전자 손상 등으로 고통스런 삶을 견뎌야한다. 방사능 낙진도 있다. 그 폐해는 국경을 넘고 세대를 초월한다. 핵무기가 다량으로 사용되면 생명의 손실, 환경 파괴 뿐 아니라 지구의 기후가 교란되고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도시가 불타면서 상층 대기권으로 연기가 모여 해를 가리고 지구 온도의 하강으로 이어진다. 어둠이 지속되고 농업이 붕괴하면서 수십억명이 기아에 몰릴 것이다.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인류의 노력

1.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1968년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체결되었다. NPT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나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약이다. 핵무기의 비확산과 군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지만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평등조약일뿐더러 군축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PT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컸다.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의무를 정한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대신, 핵 무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온 것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90년대 들어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핵무기 금지를 이루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94년에 유엔회원국들은 총회를 통해 '핵무기 위협과 사용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ICJ에게 의견을 구하기로 결의하였다. ICJ는 오랜 심의 끝에 1996년 7월 8일,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은 일반적으로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권고의견을 발표하였다.

14명의 재판부는 찬성 7명과 반대 7명으로 나뉘었고 재판장의 찬성투표로 이 의견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제출한 7명 재판관들의 의견서를 살펴보니 그 중 5명의 실제 의견은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라는 단서에 대한 반대, 즉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핵무기에 의한 위협과 핵무기 사용이 이미 기존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위법이라는 의견과, 공식적으로는 반대 투표했지만 별도로 위 사항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힌 경우가 있었다. 즉, 재판장을 포함한 15명 재판관 가운데 13명은 핵무기 사용 위협과 사용이 실제로 불법이라는 의견으로서, 이는 압도적 다수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 권고의견은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극단적 상황에서의 핵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해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장은 핵무기를 ‘최고의 악’으로 칭하면서도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이라고 확정지어 명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아직 국제사회의 인식과 여론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96년 ICJ의 권고의견은 권위 있는 국제사법기관이 핵무기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위법성을 명시한 것으로서 오늘 인류가 갖게 된 핵무기금지조약을 향한 길에 큰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3.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이제 인류의 공통적 염원이 되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188개 가입국은 ‘핵무기의 어떤 사용으로도 초래될 인도주의상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을 향해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의 표현은 핵무기금지조약의 전문에 그대로 쓰이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 핵무기의 어떤 사용으로도 초래될 인도주의상 재앙적 결과에 깊이 우려하며, 따라서 그런 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것이 다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어서... 다음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인류에게 행복, 평화, 박애 등의 좋은 가치를 인종·국경·체제 등을 초월하여 타인에게 실천하는 사고방식 혹은 운동’을 뜻한다. 핵무기는 인도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핵무기는 무차별 대량살상과 파괴의 수단이며 공동의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일 뿐이다.

‘인도주의에 끼치는 핵무기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3월과 2014년 2월, 12월에 3차례의 국제회의가 노르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다. 점점 많은 호응으로 3차 회의 때는 158개국 참여를 기록했다. 3차 회의를 마치며 오스트리아는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을 위해 ‘인도주의 약속’을 제시하였고 127개국이 그에 서명했다. 그 밖에도 유엔은 2012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2013년 총회와 2014년 총회에서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적 의제로 다뤄져야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어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각각 125개국과 155개국이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성명에도 불참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으나 ‘인도주의 약속’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한국을 포함하여 소위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은 유엔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2018년 2월 현재 브라질, 쿠바, 인도네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필리핀, 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56개국이 서명하였고, 태국, 멕시코, 쿠바 등 5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등 핵무기 관련 일체의 행위를 모두 불법화했다. 핵보유국들도 기한을 협의하기로 하고 그 기한 내 핵 폐기에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절실한 핵무기금지조약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핵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바로 한반도다.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쓰며 핵 선제공격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지켜주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사상 유례 없는 핵 대결을 불러왔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더욱 생각과 뜻과 의지를 모아서 핵무기를 피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한다.

한국은 핵금지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소위 핵우산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 사고이다. 미국의 대남한 핵우산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을 내포하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북한은 더욱 군비 증강을 하게 되었고 핵무기 개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전을 지켜주기 보다 한반도의 핵 대결 심화라는 결과를 낳


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을까? 북한과 군사적·정치적 대립을 지속해온 미국의 속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군사력 배치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구실이 되는 건 아닐까?

반면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대결하는 대신 미국에게 핵무기의 전면적 제거라는 인류의 대의를 따르자며 핵금지조약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일정한 조건 하에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2016년 7월 6일 이미 밝힌 바 있다. 조건을 달았지만 핵 폐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9개 핵보유국들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다.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음을 검증하고,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남한의 미군 철수를 선포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금지조약 동시 가입을 제안하고 북한 먼저라도 핵무기 금지조약에 서명할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 충족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 내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게 되지 않을까? 미국이 그에 당장 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평화 제스처를 통해 얻게 될 실익이 있다. 국제사회가 북미대결의 근본적 이유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평화 제스처로 화답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북한 제재와 연합연습의 정당성을 잃게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닌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핵무기금지조약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의 의사를 밝힌다면 국제사회는 크게 반길 것이다. 가입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면 국제사회는 동북아 위기의 해결을 위해, 세계 핵대결 위협의 진앙에서 그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핵무력과 같은 물리적 대결을 추구하기보다 인류의 대의에 호소하고 국제사회를 한편으로 만드는 길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맥엘로이 주교의 ‘평화를 위한 기반’을 읽고

윤승하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맥엘로이 주교의 글(평화누리통일누리 2018년 1월호 참고)은 핵무기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특히 핵억제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맥엘로이 주교는 핵무기 문제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현행 핵체제와 핵억제론을 거부”한다고 말한다. 그는 핵 시대 내내 가톨릭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가 핵무기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변함없이 확고하게 지적”해 왔음을 이야기한다.

핵억제, 조건부로 도덕적인 수용이 가능한가?

냉전시기 핵억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1982년 성요한 바오로 2세가 유엔특별군축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균형에 기반을 둔 억제는 분명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며 점진적 군축 도정의 한 단계로서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83년 미국주교회의는 그의 입장을 뒤따르면서 핵억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은 교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주교들은 핵억제에 대한 엄격한 조건부의 도덕적 수용이 세 가지 기준에 달려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억제전략에 대한 의존은 잠정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둘째, 잠정적으로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단지 다른 이들에 의한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억제에 대한 의존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군축을 위한 조치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핵억제론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

첫째, 억제전략의 수용은 결코 잠정적인 정책으로 그칠 수가 없다. 핵억제론은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위협과 공포감을 줌으로써 침략을 방지하고자한다. 이는 서로 간에 지속적인 적대감을 조장해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저해하고 억제에 대한 의존상태를 고착화시킨다. 냉전이 해체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핵억제론이 국가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타인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핵억제론의 논리로서 핵확산을 조장한다. 이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든 국가의 핵 보유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했고, 소

런, 중국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핵억제에 계속 의존하는 한, 핵무기의 유지는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핵억제에 대한 의존은 결코 군축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군축에 역행하는 길이다.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것임을 믿게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계속 위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군비증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대방 또한 군비를 증강하게 되고 결국 서로 간의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냉전시기가 끝나고 1998년 75명의 미국 주교들은 핵억제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서의 핵억제가 도덕적으로 끔찍한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1983년 교서와는 달리 핵억제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1998년 이후 미국 교회는 핵억제를 더 이상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핵억제론의 허구성을 지적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11월 10일 ‘핵무기 없는 세상과 완전한 군축을 향한 전망’ 회의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안보의식을 만들어낸다면서 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는 억제를 위한 핵 보유를 도덕적으로 수용했던 1982년의 절충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핵억제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교황의 발표 이후에 검블턴 주교는 2017년 11월 16일 미국의 가톨릭 언론인 NCR과의 인터뷰에서 핵억제에 대한 1983년 미국주교회의의 교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교서의 입안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핵무기 보유도 강력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는 최근 교황의 발표를 고려하면 이 교서를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검블턴 주교가 1983년 교서의 재평가를 말하는 것은 과거 미국주교회의가 억제를 위한 핵 보유를 도덕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의 억제 전략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 전략이 무차별적 살상을 위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핵억제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부여했던 교회의 가르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쉬움과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월 교황청도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라면서 다시 한 번 핵무기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축과 평화 증진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가 심각한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며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소성리 최장기 지킴이 자문자답 인터뷰 소성리 사드 투쟁 1년, 그리고 2018년

강현욱, 김영재 소성리종합상황실



1.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영재 : 안녕하세요, 저는 사드저지전국행동 파견으로 현재 소성리종합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김영재입니다.

강현욱 : 저는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의 강현욱 교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성리종합상황실에 원불교 파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소성리에는 언제부터 머물게 되었고, 어떻게 머물게 되었나요?

강현욱 : 작년 2월 28일 롯데CC에서 국방부로 부지가 넘어간 이후 6주체(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언제든지 사드가 소성리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빠른 현장대응을 위하여 상황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3월 1일 마지막 구도길 순례가 있는 날 소성리에 왔고 상황실에 파견되어 소성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영재 : 2016년 12월부터 평통사의 사드배치반대 현장홍보활동을 위해 매주 3일간 소성리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성주와 김천 지역 마을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6주체의 소성리종합상황실이 생기면서 전국행동 파견자로 소성리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13년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에서 지킴이로 활동했던 현장 경험이 다시 소성리로 오게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3가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재 : 1년을 돌아보니 매 순간이 어제 일처럼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을 세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제가 상황실에 처음 왔을 3월초 당시, 저와 강현욱 교무님이 번갈아가며 마을 회관 앞 원불교 평화교당 천막을 밤새 지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 마을 입구를 홀로 감시하면서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곤 했는데, 모두 다 잠든 이 시간 혼자 깨어 지키고 있다는 게 무척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버겁기도 했던...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4월 26일 사드 1차 반입 때, 사람들이 지르던 그 비명소리, 그 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울음섞인 비명을 동시에 내지르는 것은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 긴박한 상황이 서늘하게 소름이 끼치면서 꼭 지옥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그 비명들과 울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억에 남는 장면은 9월 7일, 사드 추가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밤새 투쟁한 마을 주민과 연대자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경찰저지선을 함께 밀던 장면입니다.

모두들 다치고 지친 상황에서도 젓 먹던 힘까지 짜내던 높은 결의가 우리 평화운동, 사드철회 투쟁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자주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현욱 : 첫 번째는 3월 11일날 진밭교에서 처음 철야기도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3월 1일 이후 소성리 현장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방향이나 분위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밭교 철야기도는 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또한 돌아보면 원불교 내에서도 진밭교에서 철야기도를 하겠다는 선언이 없었으면 지난 1년간 교단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교도로서 찬 겨울에 천막 하나에 의지해 거리에 앉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경험은 교단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밤에 산을 울리며 했던 독경들이 개인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4일, 국방부가 위장으로 부식차에 기름을 싣고 온 날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사드 배치의 진실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집단보다 폐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기만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 아닌게 없습니다. 기름하나 들어가는 것조차도 편법과 거짓으로 들여 놓는데 사드배치 과정에서 어떠한 합법과 진실이 있었겠습니까? 국민의 재산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는 없었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의도적으로 새 대통령에게 사드에 관한 문서를 숨겼습니다. 부식차에 유류를 반입한 사건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기만성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재미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도 9월 7일인데 약간 장면이 달라요. 9월 7일 이전 소성리의 모습은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둘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투쟁이 끝나고 난 마을은 꼭 쓰나미가 지나간 마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 천지에 쓰레기 뿐이었고 평화를 지키고자 형성된 생활공간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탄생시킨 촛불정부에서 저지른 만행이었죠.

정말 거칠 것 없이 몰고 들어왔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것은 모조리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거기에 더해 이 만행이 우리가 탄생시킨 촛불정부에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지금 다시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생활공간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 꼭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느껴져서 기억에 남습니다.

4. 개인적으로, 사드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현욱 : 시작이죠. 시민사회의 아픔에 종교인으로써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첫 번째 사건이죠. 사실 개인적보다는 교단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이 사드투쟁은 성지수호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만 원기 100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앞으로만 향해있던 그 시각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밖으로 향해야 한다는 각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산종사님이 앞날을 예상하고 태어나 신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 운명론을 믿지는 않는데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너무 절묘합니다. 원기 100년은 앞으로 100년 후까지 200년 원불교가 가야할 방향성이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시대 속에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종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부정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을 가진 깨어있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한국땅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원불교의 미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김영재 : 사드가 이 땅에 배치되면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긴장과 대결이 조성되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있어 사드철회 투쟁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에 대한 문제가 곧 나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게 된 투쟁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 상황실 실무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강현옥 : 제일 힘들었던 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중요한 순간들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들, 최종적으로 주체들에서 빠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분열과 상처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김영재 :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연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때였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수록 그만큼 투쟁을 이어가기도,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닦쳤을 때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투쟁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들의 무게는 실무자로 참가하지 않았던 과거 투쟁에서의 고민과 질적 차이가 있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6.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부정부패에 의한 많은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당장 뛰어 들어 함께 할 투쟁현장도 많은데 현재 사드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투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사드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재 : 사드투쟁은 자주와 평화가 훼손되고 통일이 요원해지는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강화되는 미국 주도의 신냉전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들과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중요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사드투쟁은 이 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큰 의미가 있는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현욱 : 우리가 6개월간 촛불을 들고 외쳤던 6대 적폐 중 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에 썩어있던 문제라면 사드라는 문제는 해방이후 대미 종속적인 관계에서 쌓여왔던 아주 오래된 외교 안보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즉 다른 다섯 개가 내부청소를 위한 투쟁이라면 사드문제는 시대적으로 미국 일변도의 획일적이면서 종속적인 외교 관계에서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로서 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며 자주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대적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사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영재 : 사드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이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투쟁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미래의 명운이 걸려있는 투쟁으로 인식하고 끈질기면서도 강고하게 투쟁에 임하려는 마음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 연대죠.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연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연대고 우리가 미래에 싸울 수 있는 것도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소성리라는 지역이 중요하지만 이 사드문제가 대한민국 대통령마저도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만큼 국제적인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나서서 싸워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있어서 연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투쟁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아픔이 존재하는 모든 투쟁이 연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해온 바도 연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도 연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도 연대입니다.

8. 2018년엔 사드 투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강현욱 : 2018년은 사드 완전 배치의 기로에 서 있는 해입니다. 현재 정부는 사드문제는 정말로 견들고 싶어 하지 않아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채 조용히 이대로 외쳐왔으면 하는게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죠. 그래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철저히 묻어 두고 있습

니다. 국민들은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대통령이 추가 배치를 지시한 사안이고 대통령도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기때문에 더욱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또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6대 적폐 중에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적폐지만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2018년 사드 투쟁의 중요한 점은 존재감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언제고 터질 폭탄입니다. 분명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버티는 것이 2018년의 가장 중요한 투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 : 강현욱 교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은 사드가 완전배치 되느냐 철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투쟁을 좀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은 물론 다시 국민들에게 사드문제의 진실을 호소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 마지막으로 평통사 회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강현욱 : 이 사드 투쟁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평통사고 가장 열정적으로 협력한 것도 평통사입니다. 이 투쟁에 평통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어올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원불교 안에서 반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모두가 떠나도 결국 원불교와 평통사는 남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저 사드를 뽑아 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재 : 지난 몇 년간 사드 문제를 알리고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전국의 회원님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한해, 사드 투쟁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서 소성리로 한달음에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피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현재 모두 반입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2018년, 더 어려워진 조건이지만 결국은 우리 평통사가 사드를 뽑아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힘을 모아 사드를 뽑아내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는데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사드철회 투쟁,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나주평통사 창립에 부쳐


이정훈 나주평통사 대표

오랜 분단의 고통과 억압이 여전히 우리 삶을 옥죄며 아프게 하는 이 땅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아마도 전국 지역의 회원님들도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중들의 힘찬 저항정신이 늘 꿈틀거리며 용솨음쳤던 나주에서 평통사 대표가 된 것이 개인적인 큰 영광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주에서 평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4월 25일부터 창립을 목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9월 28일에 정식으로 나주 평통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대중 강연회를 개최 하는 등 회원 교육과 대중 강연을 통하여 평통사의 가치와 실천을 배워오다가 2018년 1월 26일 나주 평통사 창립총회를 열면서 나주에 평통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주 평통사 창립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회원님들과 전국의 지역 평통사 회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 평통사는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평통사와 함께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전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나주지역의 통일 경작 사업이나, 평화와 통일, 복지를 위한 사업과 실천들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주

나주평통사 첫발을 내딛으며



따뜻한 남도에도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1월 26일,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주평통사 회원들과 나주평통사 창립을 축하해 주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주평통사는 긴 시간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창립을 목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9월 정식 나주 평통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를 준비했습니다. 나주평통사 준비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회칙과 2018년 사업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34명 회원 모두가 함께하는 창립총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위원회 전원이 전화작업과 가까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준비했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저녁 6시 30분 나주에서부터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의 응원으로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광주, 순천, 무안 평통사 대표님과 회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지역 제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울 매서운 한파도 놀라 끄꽂 숨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쌍중단으로 평화협정을 끌어내어 평화통일 열어갑시

다.” 문규현 상임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 나주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나주평통사 창립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김병균 공동대표 축사가 이어졌고, “통일운동이 나주지역에서도 꽃 피워 열매 맺길 기대합니다.” 나주사랑시민회 채규상 대표의 연대사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창립총회는 이정훈 준비위원장 진행으로 회원 34명 중 21명 참석으로 본회가 열렸습니다. 나주평통사 회칙과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선출(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나주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기본으로 사드배치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폐기 운동을 전개하며,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열성회원을 육성해 평화아카데미, 평화음악회 등의 대중사업을 마련해 나가자고 합니다. 평통사의 힘은 공부하고 실천하는 회원들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 전회원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월 공부모임과 실천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서툰고 빼그덕 거러지라도 평화 가득한 이정훈 대표와 통일의 열정 가득한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있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나주 학생독립운동 89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엄중한 정세와 부족한 역량, 제한된 물질적 토대 속에서 출범하는 나주 평통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겨레의 비원인 자주적 통일을 이루는 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나주평통사에 보내주신 축하와 격려 잊지 안겠습니다. | 양이하 |

♥ 광양 목포 해남

목포와 해남, 광양에서 회원 신년모임 진행



1월 12일(금) 목포, 1월 23일(화) 해남, 1월 27일(토) 광양에서 2018년을 맞이해서 첫 신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식사와 차를 마시며 2017년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2018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결의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남에서는 신년회와 별도로 두 차례 2018년 해남지역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성적인 회원들을 세우야 한다. 꾸준한 공부모임 진행, 평통사 내용으로 정기적인 실천을 진행하자”는 결의들을 모았습니다.



광양에서 진행한 모임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과거 6.15 남북공동 예술행사 추억담, 현 정세와 미래에 와야 할 평화체제는 어떤 모습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행했습니다.

♥ 군산

군산평통사 회원 수련회 개최!



지난 1월 27일(토) 오후 2시~8시, 개정면에 있는 발산권역센터에서 군산평통사 회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회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원 친교와 교육, 공연과 식사 등 오랜 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기차기와 퀴즈놀이에서 배를 잡고 웃음꽃이 터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제로 한 김판태 대표님의 교육과 회원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절실함을 느끼고 적극 실천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원들이 준비해 온 맛있는 식사와 합창출세의 공연 등 군산평통사 회원들의 친목과 정체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회원 토론

지난 2월 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회원 토론모임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월 27일 회원 수련회에서 회원들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 정동석 |

열린 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 모임에는 박운옥, 최소영, 김태순, 현기석, 신훈섭, 이재호 회원님이 참가하고 김판태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주제는 1)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무엇인가?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무엇이고 동시에 가능한가? 3)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는 동시에 가능한가? 등을 주제로 두시간 동안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보다 진전된 의견으로 하나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기석 회원님은 평통사 입장을 “북핵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으로 잘못 알았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김판태 |



소성리 사드 철퇴 투쟁에 진밭교 새벽 지킴이 활동과 매주 토요일 집회, 일요일 지킴이 활동에 대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대구



1월 13일(토) 평통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구지역 회원 간담회를 왜관 수도원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1월 29일(월) 경상북도가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불모로 삼고 지역 개발 지원 요구를 한 것에 항의하며 경북도청 항의방문, 경상북도 개발지원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김찬수 대표님과 대구, 성주, 김천 회원들은 소성리 바람이 우리를 날려 버릴듯 불어도, 진밭교 새벽 바람이 우리의 뺨을 열려 버려도 의연히 두박두박 사드철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걸어갑니다.

| 이미경 |



♥ 대전 보령



대전과 보령, 논산계룡 등 지역별로 평통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후속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관련 내용은 평통사 워크숍 발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과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대다수의 회원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에 동의하였습니다.

| 유영재 |

♥ 마산 창원진해



마창진 회원모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조직에서 모임으로 전환한 후 마창진 회원들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평통사 현안을 중심으로 학습과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주 1회 캠페인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마창진 평통사로 원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 박석분 |

♥ 성남용인

1월 23일 월례 회원모임



“평통사 정체성 토론회” 준비를 겸한 월례 회원모임을 1월 23일 가졌습니다. 5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해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의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발제를 듣고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참석한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으며 1회원 2인 가입 권유로 회원확대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김춘식 회원 EBS 다큐 ‘희망풍경’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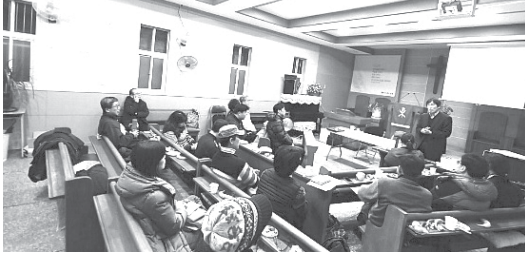
김춘식회원의 “팔뚝두부” 이야기가 교육방송 ‘희망풍경’에 보도되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껏 만드는 수제두부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각장애인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춘식회원은 용인시장입구에서 매주 금요일 세월호와 사드반대 홍보를 지속해 오는 등 지역 풀뿌리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인터넷으로도 EBS에 들어가면 방영된 ‘희망풍경’ 김춘식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bs.co.kr>)

| 서덕석 |

♥ 부산

1/27 중앙과의 간담회 진행

2018년도 중앙운영위원총회(3월 3일)와 부산평통사총회(3월 11일)를 준비하면서 지난 해 12월 9일(평통사 정체성 워크숍)부터 평화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평화군축과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평통사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운영위원들의 토론과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월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산평통사는 이 간담회 준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중앙에서 고영대 공동대표와 오혜란 협동사무처장, 김강연 홍보팀장, 부산에서는 운영위원 등 1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평통사에서도 회원 세 분이 동참했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후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견을 더 줄여나가고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학습하여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나가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실천의지를 하나로 모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됩니다.

부산 2018 첫번째 평화발자국은 제주

부산 평화발자국 시즌2-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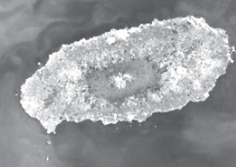

2018 첫번째 평화발자국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배운다

2018년부터 부산평통사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근사기지를 돌아보면서 부산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 발자국을 4.3항쟁 70년을 맞는 제주에 맞춥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카다만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미 7함대 작전참모 데이비드 러치터)

2018년 3월 30일(금)~4월 1일(일) (2박3일)
강정해군기지, 제2공항추진현장, 전방역사평화박물관, 4.3평화공원, 4.3 70주년행사 참가 등

참가비 : 30만원 (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신청 : 010-3434-7542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4월 1일(일) 2박 3일
내용 : 강정해군기지, 제2공항추진현장, 4.3 평화공원 등
참가비 : 30만원 (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 : 010-3434-7542

| 김건우 |

♥ 서울

2018년에도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는 계속~



2016년 7월 11일부터 시작한 미 대사관 앞 일인시위는 올해도 계속합니다. 특히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남북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의 내용을 담은 피켓도 같이 들고 일인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일인시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운영일 회원(010-2507-4230)에게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새롭게 단장한 피켓으로 1인시위도 하고 차도 같이 마셔요. 1월 2일, 새해 첫 일인시위 후, 차 한 잔의 여유~~

청년 모임 신년회



2018년, 청년모임을 힘차게 해나가기 위해서 신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올해 청년모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황윤미 |

♥ 서울남부



2월 5일(월), 모처럼 서울 남부 평통사 운영위를 했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근황을 나누고, 향후 서울 남부 평통사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할지에 대해서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름의 지혜를 모아 서울 남부 평통사의 활력을 되찾아야하겠습니다.

2월과 3월의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 담당을 정하고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면서 뒤풀이도 했습니다.

| 형복순 |

♥ 인천

인천평통사 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3월 17일(토) 저녁 7시
- 장소 : 구월1동성당

* 박남수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 이우성 |

♥ 중앙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전국동시다발 릴레이 1인시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직후 한미 군사연습 시작?

3.24(토) 광화문 평화의 촛불로
전쟁위기 막아내요!

한미 군사연습

북한 핵 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대북 적대정책 폐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

◎일시: 2월 9일(금)~3월 23일(금) <주말 제외>

◎장소: 서울 청와대 분수대, 미대사관 앞 / 인천 부평역 / 부천 부천역 / 대전 대전역 / 군산 롯데마트 군산점 /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 광주 금남로 광주우체국 / 목포 목포역 /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 /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지하)

한미당국과 북한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연습과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공격계획(‘코피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3월 25일 이후 한미 연합 연습이 재개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남북미 당국에 3월 25일 이후에도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3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평화의 촛불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이주은 |

회비와 후원금 (2018년 1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 및 임원] 박상희 서창호 임종철 강경구 권정호 배종열 이일영 이천우 정혜열
 [후원회비] 서경숙 이성호 이창우 류희승 유영섭 김점수 유광수 김형배 장성두 김명래 김용순 김동환 김귀국 김광진 정경훈 이옥숙 이규영 권영선 김경희 황호영 조은숙 김삼열 이영민
 [찬조금 및 후원금] 강남교회 김상근 김영배 도진호 들꽃향린교회 박종권 손정민 앙동일 이현숙 조문자 조민희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전주남문교회 부산평통사 박석문 서준환 신정길

광주평통사/광양평통사/순천평통사/나주평통사(준)/무안 해남 목포 모일/전남 기타

강경식 강덕구 강동영 강복현 강성주 강성희 강 신 강영태 강일규 강정원
 강경자 강진하 강춘원 강태양 강현옥 고성식 고영철 고익중 고재환 고정석
 공훈표 광길성 광 준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대현 김덕용 김덕우 김덕현 김동구 김동영 김동우 김동호
 김두영 김 문 김미경 김미숙 김미진 김미희 김민선 김민호 김범종 김병교
 김병기 김병욱 김병태 김삼철 김삼연 김삼덕 김석원 김선미 김선발 김선태
 김승룡 김성빈 김수경 김수영 김슬기 김승식 김양수 김영근 김영석 김영자
 김영재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옥길 김옥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우성 김은근 김은근 김은숙 김은정
 김은지 김은희 김윤남 김이준 김이철 김재중 김재홍 김 정 김장성 김성식
 김정은 김정은 김중수 김중안 김준희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현
 김정필 김태욱 김태원 김서현 김한길 김 현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식
 김현진 김혜숙 김혜연 김혜현 김호산 김희숙 김희성 김효경 김효승 김희숙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성근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노형태
 류경수 류보은 류승현 류춘신 마하진 명경관 모영현 모미경 문성훈 문애준
 문영란 문영숙 문영태 문영훈 문유신 문재경 문재식 문지일 문형규 문홍석
 문희정 민경진 민형배 박경옥 박경희 박광은 박광희 박기웅 박기현 박동화
 박미옥 박민근 박성섭 박병욱 박상식 박상일 박상일 박상준 박상진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우 박석현 박신익 박신재 박성수 박수원 박수희 박승규
 박영도 박영실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우 박우두 박윤수 박은정 박재영
 박정연 박정희 박중삼 박중열 박중열 박중주 박중찬 박중재 박중태 박태수
 박주식 박종렬 박지영 박찬형 박창근 박태성 박홍성 박치우 박태기 박태순
 박태현 박필수 박형주 박홍환 방진석 배경섭 배우공 배민휴 배성환 배영일
 배영준 배진하 배중진 배복열 배동우 백신익 백중수 백지은 변철진 봉문수
 서경훈 서광식 서민호 서복원 서영란 서용석 서 정 서정대 서정숙 서준환
 서창호 서청우 소 영 손낙순 손우지 손민섭 손민현 손승상 송규원 송담숙
 송미숙 송승선 송승근 송현진 송철호 송호찬 송호철 신규구 신기홍 신덕희
 신영훈 신인식 신정환 신현국 신현호 신창남 안광표 안병일 안보현 안보현
 안성은 안소희 안영진 안재현 안재현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순규
 양승집 양이희 양철홍 양하숙 양현일 양현주 양혜주 양상명 양봉록 양재우
 양승경 양승주 양영태 양옥목 양중호 양창규 양철우 양태현 양태형 양하근
 양해근 양형민 이형신 이광정 이완복 임대명 임동용 임미이 임세미 임선익
 유 중 유중현 유지용 유현승 유홍영 유규현 윤희주 윤희라 윤희란 윤희호
 윤성근 윤영성 윤예중 윤종범 윤준서 윤현진 윤희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경훈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규민 이규립 이규일 이규학 이규연 이금한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대환 이도선 이동현 이매실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라미 이상규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성계 이성태
 이소형 이수경 이애란 이영기 이영형 이연필 이윤대 이윤빈 이윤주 이윤범
 이원현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창 이정옥 이정재 이정학 이정훈 이정훈
 이종환 이종희 이지훈 이철우 이종재 이태석 이태욱 이현기 이현림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이희정 임광석 임대명 임동용 임미이 임세미 임선익
 임순만 임원택 임종모 임재철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세근 장세현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유리 장유진 장현규 전상규
 정기선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은 정동석 정록호 정성철
 정성호 정성기 정성국 정성민 정성우 정성호 정수진 정승창 정양호 정영동
 정영록 정영관 정영이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재석 정중득 정중석
 정지범 정찬길 정진이 정찬록 정찬석 정찬영 정해원 정형환 정희만
 조기태 조기현 조동근 조상현 조영규 조영식 조영민 조용근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장익 조호재 조희열 주경진 주진석 지희준 천태미 천재영 차정운
 채미라 채민소 천우석 최경미 최경환 최기중 최기호 최미나 최병태 최병삼
 최 성 최신성 최 열 최영돈 최영수 최용호 최윤덕 최중률 최진연 최진호
 최치현 최희성 최 훈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상인 한정희 한영근
 최민필 홍관희 홍기원 홍상대 홍성주 홍우환 홍홍식 홍인희 홍권택
 황미경 황세종 황수영 목포 뽕애포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강경덕 강인수 강임준 강정식 강해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욱 김성태 김성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영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원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삼 김태경 나신환 남대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자국 박영희 박윤옥 박원규 박정에
 박중대 박중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창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우 오국진 오금수
 오성한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영로 이복희 이봉호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수 전희남 정 난 정 민 정옥진
 정창안 조경수 조규관 조남년 조성욱 조용주 조인호 조재욱 조만혁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은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상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옥현 장재순 양기만 김진
 변소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현 김경호 신유미 이재호 신홍선 현기석 이진우
 조수현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옥 강형구 고경수 고희림 광미경 규연우 구자숙 권오혁 권재호
 권운진 김기연 김기욱 김기웅 김대식 김덕기 김도은 김동수 김명환 김무영
 김미란 김병길 김선희 김성수 김성태 김성태 김수경 김영숙 김윤범 김경수
 김경애 김중희 김진영 김한수 김현택 김효남 나미숙 노영욱 노익환 문광덕
 문헌준 문혜경 박기백 박문수 박민호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성
 박소중 박재범 박진강 박진식 박희태 박형선 배소라 배영자 배인연 서보성
 서수녀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신동찬 신영도 신효철 안재철 안주연 안현수
 양은숙 양상준 오혜란 유소희 유미경 유은정 유은정(김진) 유창열 윤병환
 윤하원 이근우 이기문 이대희 이영덕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상문 이석주
 이상희 이수인 이수인 이영훈 이용우 이은수 이정연 이종근 이종진 이종춘
 이준원 이종식 이창주 이태광 임정근 임진우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전은희
 전정훈 전호영 전희영 정민규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준호 조규현 조유현
 조현정 주경봉 차상혁 채영희 최병태 최석인 최진영 최희순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한상욱 함수연 허정호 허래남 홍관의(황지영) 홍상욱

대전충청평통사

가명현 김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권길성 권길성 김용수 김용수 김기수
 김기현 김덕애 김도석 김동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성중 김선미
 김성기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요경 김정수 김지수 김진안 김홍업 김홍수
 나백주 남누리 노정래 류기형 오석진 오성진 문소희 문양로 민성호 박병문
 박은희 박인철 박중찬 박필규 박민익 백승현 변혜숙 변혜숙 서민철 서민희
 손정희 송광석 송신근 송광은 신성원 신주희 신현운 신현철 심규상 심성우
 심천호 심천호 심주호 안창호 오광영 오수철 오승아 오연근 오찬실 원용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원 유정원 유정철 유진범 이병민 윤상렬 윤해경
 윤호권 이건승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문환 이변영 이병규 이세준 이호인
 이우근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재욱 이종영 이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현숙 이훈국 임춘근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장영배 전은경
 정영진 정성현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승호 조만영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천 조재형 조재형 조주형 최영규 최영규 최영민
 추교화 한상철 한용세 함필주 홍지은 황영식 풍천교회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순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성 김진수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덕표 이우영 이재문
 이정학 이학원 추동신

부천평통사

강용환 구광수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성근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애연 김영준 김용성 김원식 김인영 김경은
 김성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문은정 민경신 박석민 박성진
 박숙경 박영빈 박인호 배영미 변승기 변은주 사이화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손우수 손종욱 송기부 송봉훈 신정길 심영성 양남연 오복근 유승우
 유원희 윤희환 이규원 이병훈 이숙자 이숙자 이영애 이영재 이영애 이규규
 이종주 이준훈 이진희 이현구 이홍만 임숙영 임현순 장인국 장해영 전윤미
 정연희 정승국 정운진 정윤희 정인주 정현희 정희목 조기대 조숙희 주명숙
 조영일 주옥련 주영숙 지상철 지은희 지대봉 천수향 최희석 최영미 최정규
 최희준 허오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선 황영희

부산평통사

강문수 강정아 계숙경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일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서운 김수환 김영수 김명자 김요아김 김용만 김옥 김유순 김우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경혜 김창호 김하연 김해영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혜경 김효기 김홍술 김훈규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석문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문 박수진 박수자 박영 박인순 박재에 박정하 박종대 박중순 박진태 박철 박희동 방영식 서경혜 서금성 서기범 서진화 석현진 설정희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종 신승태 신차범 신나영 심창진 안재익 안종덕 안진숙 양윤정 양진철 양하나 염구현 여승철 우수경 원무원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월신 이우영 이의용 이인순 이정숙 이정선 이정숙 이종영 이종숙 이진호 이창환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정호봉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태하 정명선 정봉실 정성은 정원희 정우희 정의태 정의원 정재양 정해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교파 진병환 차성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대 최병학 최영혁 최윤희 최은주 최준태 최진 최형록 하지림 한기양 한석문 황구화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서울평통사/서울남부 평통사

강수해 강재만 강양원 강영욱 강우균 강유미 강효석(2개월) 고경성 고평호 고연주 공동길 광원호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걸 권순형 권영우 권제세 권혁문 권태인(2개월) 김각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규태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동훈 김두산 김명일 김명일 김미경 김미영 김민영 김복녀 김상패 김새론 김석국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인순 김연옥 김영국 김영리 김영모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우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재훈 김정미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중희 김중환 김지수 김진 김진환 김중례 김태순 김현성 김해성 김항자 김현주 김희순 김우중 김희국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노임방주 류미자(2개월) 류지자 류은숙 림구호 맹봉학 문병호 문수정 문인근 문정화 문희경 민윤혜경 박경태 박덕민 박명숙 박병관 박봉희 박연미 박은복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민 박진희 박해철 박후일 박희선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 배춘실 변순영 변승만 변연진 서보혁 서영미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정래 서정호 서진희 서창식 선소진 선순단 손부한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운희 손정목 송금식 송무호 송상호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근호 안병순 안희목(2개월) 양계택(2개월)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미정 오선환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용 우성란 유영철 유중석 윤근식 윤동현 윤영일 윤영진 윤은주 (2개월)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도 이돈성 이동주 이병일 이상기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서형 이수연 이수정 이형수 이수진 이수철 이순희 이순규 이아름 이애용 이윤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현준 이해경 이해진 박승렬 이해정 이효정 임동원 임미경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남희 장성식 정경우 전성표 전현우(2개월)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영문 정원진 정은숙 정호현 (2개월) 조계성 조영희 조창희 조현우 지미자 진유식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최대목 최민숙 최정원 최영환(2개월) 최항숙 한문덕 한상근 한상기 한상숙 한선영 한중현 한현실(2개월) 한호석 허경자 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영준(2개월) 홍창의(김명태) 홍희덕 황안 황윤미 황철우 *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거저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안동평통사

고정희 권기춘 권순희 권영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병상 김석현 김순자 김예숙 김인성 김재권 김중렬 김재현 김재현 김혁배 마영락 민현주 박재근 박종익 손도숙 손도숙 손현호 신광진 신성일 여상하 오덕환 윤지홍 이경재 이매우 이성로 이태환 이혜선 장세길 정복순 조규천 조병재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조한웅 최나희 최은환 최형석 한영선 강석주 김수동 김정석 김경희 김주철 김지성 김판갑 김현태 박무식 박용재 박종규 배용환 유준우 윤 창 이병현 이 창 한철희 * 지난해에 '김헌태 계좌'로 회비를 보내신 분들의 명단이 누락된 점 사과드립니다

익산평통사

강익현 김대승 김대승 김미경 김성덕 김순덕 김양용 김우순 김은진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노영태 박두식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박지영 박창신 배병욱 백낙진 백선영 서 용 소병직 송동환 신귀백 신항우 심경희 안영록 안 준 안현석 오기주 유미정 유미정 유재동 유진우 유희탁 이근수 이문선 이병식 이보미 이보미 이복순 이석근 이윤성 이은경 이상우 이정철 이종민 이홍규 이진규 이해경 이현숙 이화춘 이화춘 임탁근 장승수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은순 정운용 조경권 채미진 채운석 최미애 최민욱 최민욱 최영이 최인경 최재철 최형민 최형남 하준자 허명석 허정길 황영희 황의성 황인철

인천평통사

강영구 강원희 강인석 고상혁 고영남 곽준경 권오승 권창식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금옥 김기수 김미경 김대인 김도을 김동건 김만우 김명중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겸 김봉은 김상기 김성경 이주는 김신미 최현호 김성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시환 김영순 김오섭 김우경 김운석 김윤조 김은숙 김익근 김익숙 김일희 김정녀 김정자 김정하 김중갑 김중은 김중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현석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문병호 문선희 문하나 이은소 박경림 박광선 박남수 박달수 박명옥 박미정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정숙 박정윤 박진 박창현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말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석영수 소병욱 신선재 손현철 송경평 송금하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용준 신윤래 신희철 심신아 심옥민 심자섭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염성태 오미경 오종훈 오창근 오혜영 원운 유근석 유성국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한경 유현철 윤성우 윤승하 윤영섭 윤인중 윤화식 최장수 이대준 이덕례 이동현 이만재 이무섭 이우용 이미경 이미정 이병철 권오승 이병란 이상천 이상로 이상은 이상희 이세구 이숙희 이숙현 이승희 이인기 이윤희 이용수 이우성 이은식 이은희 이은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옥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천직 이춘식 이태현 이해민 이해규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해경 이해정 이해정 이화정 인수범 임정철 임동렬 임병규 임재훈 임희로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전혁규 정명락 정미자 정승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인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래 조성혜 조용수 조인희 조재호 주용택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귀주 최복례 최서원 최순규 최희창 최홍욱 최정민 최세운 최정민 최준배 최현숙 추승만 추영호 하경자 하대준 한만순 한상욱 한성일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허란 허중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강대권 고내희 고영철 고이석 고차원 광동순 국 산 국 산 국윤호 권동용 김성환 김미란 김미현 김병선 김여진 김은자 김재병 김국일 김주진 김진석 김중만 김효숙 김희찬 노재화 노아경 민혜경 박기순 박미영 박수배 박우성 방용석 백승환 백혜영 봉형진 서경희 서광호 서 승 서은소 송경철 송기춘 송미영 송주섭 송호영 신귀희 신선화 신정순 심병호 심 훈 양자철 엄기철 원명재 유영진 이기봉 이기환 이도백 이동주 이상빈 이소필 이수원 이소희 이재호 이형구 임애림 임윤진 임익근 장중철 전상호 전영철 정기동 정기철 정형용 조경희 조미송 조정현 제주봉 최금희 최영숙 최영호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최정숙 하재호 한근수 한상기 허만순 황재현 황재현

성남유인평통사(준)

강수옥 김중국 김준기 김훈식 김표우 노병돈 박종환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석주 이순선이영위 이재범 장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

김제 지역 회원

강병진 강용욱 권태정 김성순 김영미 김영하 김정환 김진원 김형우 나인권 나현규 남궁윤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원용 박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인근 유성룡 유재홍 이병철 이용만 이은경 이현숙 장경태 장덕수 전미영 전철수 정현문 정영호 하기도 하상에 김창수 박영배 김형훈 이희근 소규현 문상봉 홍복사 이영아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나준이 이경록 정용희 정진국 문병선

마산창원진해 지역 회원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윤자 김지영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윤소영 윤종근 이상익 이순일 이우섭 조광호 차정민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오일 권차량 김교원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우성 김준기 김택국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명식 손영인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엄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만재 이만재 이수용 이수정 이상진 이진희 이해준 장경란 정인고 조명식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문이라문 최신선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근 한상진 현호현 황명선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필일 권형우 김경록 김동원 김민수 김민수 김성규 김욱춘 김중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임계성 정영주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정학 임승계 조현정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병준 이선업 이왕재 정항란 조미향 한양재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 동구 대전로867번길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51-38305 유영재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 351-0995-3651-23 김영석(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릉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8283-4371 국산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현택
연 락 처 : 010-4312-3939 조한웅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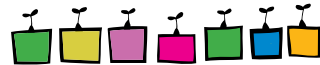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마산창원진해 010-2674-8510 김용환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이천우 박상희 김병군

감 사 김광열 **문예위원장** 문홍주 **지도위원** 배종렬 노정선 명 진 박순희 조주형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형태 이남진 장경옥

발행일 2018년 2월 21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2018 평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4차 운영위원 총회

2018.3.3(토)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

- ✓ 2017년 사업 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 확정, 예·결산안 승인, 임원 선출 등
- ✓ 운영위원 총회위원 특별회비 1만원 납부
- ✓ 총회위원으로 등록해 주세요. 구글 <https://goo.gl/HtAuPw>
총회위원은 화척 7조에 의거 재직회원 10인당 1명씩 배정되며 중앙운영위원회와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됩니다.

